

『모시정의』의 「주남」 傳箋 이문 교감 방법

김정규 *

1. 들어가며
 2. 『毛詩正義』의 구조와 孔穎達의 「周南」 해석 체계
 3. 공영달의 經傳箋文 해석과 異文 校勘
 4. 「周南」의 해석 체계 안에서의 異文勘定
 5. 마치며
- 부록) 「주남」 부분에서 보이는 『모시정의』의 교감문

■ 국문요약

공영달의 『오경정의』는 唐代 과거시험의 교과서이자 경전 해석의 권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 중 『모시정의』는 공영달이 劉炫과 劉焯의 義疏를 바탕으로 정리된 문헌이다. 공영달은 『모시정의』를 편찬할 때 다양한 판본의 이문을 교감하고, 자신의 해석 체계에 따라 經, 傳, 箋의 해석을 일관되게 구축하였다. 특히 공영달은 毛傳과 鄭箋의 연관성 및 각 판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문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문은 병존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영달은 자신의 해석 체계 안에서 모전과 정전을 교감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영달의 『모시정의』에서 「주남」의 모전과 정전에 대한 해석 방식과 교감 방법을 분석하여 당대 경전 해석체계와 원본의 정형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 북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E-mail: uninitiated@naver.com

주제어: 공영달, 『모시정의』, 『주남』, 교감, 경학

1. 들어가며

孔穎達의 『毛詩正義』는 당대의 학술을 정리하고 과거시험의 교과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찬한 『오경정의』 중 하나이다. 근래 공영달 『모시정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시정의』를 포함한 『十三經注疏』의 판본, 편집, 교감, 경전해석 등 연구로 나타난다. 일본 학자 喬秀岩는 경전해석의 시대적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는 皇侃의 『論語義疏』, 공영달의 『오경정의』, 賈公彥의 『二禮疏』와 殘軫인 皇侃의 『禮記子本疏義』, 劉炫의 『孝經述義』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南朝와 北朝의 義疏學이 初唐에 이르러 쇠망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¹⁾

그러나 『毛詩』에 있어서는 劉炫과 劉焯의 저서가 산일되어서 『모시』의 소학에 대해 한정적인 고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程蘇東의 『『毛詩正義』“刪定”考』²⁾에서는 『모시정의』가 류현의 『毛詩述義』를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했는데, 당대 학자들이 『모시정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교감한 원본과 결합하여 기존의 의소를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냈다고 추정하였다.³⁾ 孫少華와 徐建委의 연구는 先唐經典과 文本文獻의 “역사

1) 喬秀岩, 『義疏學衰亡史論』, 三聯書店, 2017.12. 해당 저서의 원제는 『南北朝至初唐義疏學研究』이다. 2001년에는 東京의 白峰社에서 일본판을 출판하면서 제목을 『義疏學衰亡史論』으로 수정하였다. 2013년에는 대만 萬卷樓에서 출판하였고 일본 출판 때의 제목을 따랐다. 이 논문 이전에는 南北朝의 경학을 공영달 『오경정의』가 발전시켰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오히려 南北朝의 경학이 初唐보다는 해석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오경정의』부터는 쇠퇴한 모습을 띤다는 것이 주류 관점이 되었다.

2) 程蘇東, 『『毛詩正義』“刪定”考』, 『文學遺產』, 2016(05).

성”과 “시대성”을 초점으로 선당문헌에 대한 歧義와 원본형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중 徐建委의 『九經從抄本到刻本的轉變——以「毛詩詁訓傳」爲例』⁴⁾에는 中國國家圖書館에 소장된 『毛詩詁訓傳』을 저본으로 『모시정의』의 소문에서 제시하는 300여조의 교감 이문을 자세히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宋代의 간행자가 이문들을 정돈하고 경전을 定型하는 방식을 밝혔다.⁵⁾ 이러한 연구는 공영달의 『모시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문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한 사례가 되었다.

『모시정의』의 교감문은 “某某, 定本(혹은 集注, 俗本)作某某”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공영달이 교감에 사용한 판본을 알 수 있는데, 언급되는 서적으로는 崔靈恩의 『毛詩集注』, 顏師古의 『毛詩定本』과 俗本이 있다. 『모시정의』에서 언급하는 ‘정본’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사고의 『모시정본』이라고 본다.⁶⁾ 속본은 당대에 통행되었던 『모시』의 판본이다. 교정문에서 언급되는 문헌으로 보아, 공영달은 ‘정본’과 ‘집주’를 참고본으로 사용하였다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시정의』의 소문과 교감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공영달을 비롯한 학자들이 『모시정의』를 편집할 당시 최소한 저본으로 『모시고훈전』을, 참고

3) 程蘇東이 “산정”이라는 말로 표현한 이유는 『모시술의』에서 『모시정의』로의 변천과 『모시정의』가 『모시술의』의 글을 계승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저자는 『모시술의』를 포함한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또 자신의 경주문에 맞는 해석을 작성했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이 글에서는 편집이라고 지칭하였다.

4) 孫少華·徐建委, 『從文獻到文本——先唐經典文本的抄撰與流變』, 上海古籍出版社, 2016.10.

5) 孫少華·徐建委, 『從文獻到文本——先唐經典文本的抄撰與流變』, 上海古籍出版社, 2016.10., 115-212면.

6) 아래의 편목은 『毛詩定本』과 관련된 연구이다. 程蘇東, 「『毛詩正義』所引定本索考」, 『中國典籍與文化論叢』, 2010; 潘銘基, 「『毛詩正義』所引“定本”研究」, 『經學文獻研究集刊』, 2015(01); 李慧玲, 「孔穎達『五經正義』中的“定本”辨析——以『毛詩正義』爲例」, 『歷史文獻研究』, 2015(02); 高藝鵬, 「再論『毛詩正義』所引“定本”性質」, 『國學學刊』, 2023(01); 余越, 「『五經正義』所引“定本”研究平議」, 『儒家典籍與思想研究』(第十六輯), 2024.4.

본으로는 류현의 『모시술의』, 최령은의 『모시집주』, 안사고의 『모시정본』, 그리고 통행되던 속본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⁷⁾

상술한 徐建委의 선행연구에서는 『모시정의』의 교감문이 송본 『모시고훈전』의 正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현존하는 송본 계열의 『모시고훈전』인 國家圖書館所藏南宋刊本 『모시고훈전』, 『監本纂圖重言重意互注點校毛詩』, 清代仿刻相台岳珂刊 『모시고훈전』 등의 판본의 텍스트는 『모시정의』의 교감문을 따랐으므로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두 텍스트가 거의 일치한다.⁸⁾ 이처럼 그의 연구는 『모시정의』의 교감문과 송본의 원본을 비교해서 두 판본 간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모시정의』가 속본 혹은 『정의』본이 틀렸다 판단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송본 『모시고훈전』은 정본을 따랐다.
2. 『정의』가 정본이 틀렸다 판단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송본 『모시고훈전』은 『정의』본, 속본 혹은 타 판본을 따랐다.
3. 정본, 『정의』본과 속본의 의미가 모두 통할 경우, 송본 『모시고훈전』은 『정의』본이나 속본을 참고하여 텍스트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
4. 송본 『모시고훈전』은 陸德明 『經典釋文』의 교감문에서 취사를 했다. ⁹⁾

이 연구는 송본 『모시고훈전』과 『모시정의』 교감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다. 다만, 더 나아가서 『모시정의』의 교감문과 해석의 연관성

7) 孫少華·徐建委, 『從文獻到文本——先唐經典文本的抄撰與流變』, 上海古籍出版社, 2016.10, 158면.

8) 소수의 사례는 반복적인 관각으로 인한 텍스트의 오류 전승을 가리킨다. 孫少華·徐建委, 『從文獻到文本——先唐經典文本的抄撰與流變』, 上海古籍出版社, 2016.10, 165면.

9) 孫少華·徐建委, 『從文獻到文本——先唐經典文本的抄撰與流變』, 上海古籍出版社, 2016.10, 165-168면.

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공영달의 교감문과 해석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오경정의』에서는 각 판본의 이문을 교감한 기록이 나타나나, 그중 교감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텍스트는 『모시정의』이다. 당시의 문헌은 사본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각 사본마다 따르는 문구가 달랐다.¹⁰⁾ 따라서 각기 다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달의 교감문은 당시에 유통된 여러 대표적인 이문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영달은 각 판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시에 유행하던 판본 중에서 바른 텍스트를 확정하였다. 경전 해석은 의거하는 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영달은 이러한 이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관된 경전 해석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그는 당대 과거시험의 교과서로 활용될 신뢰할 만한 경전 해석서를 편찬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공영달의 『모시정의』의 해석은 올바른 저본을 기반으로 해야 했고, 따라서 공영달은 교감문을 통해 바른 저본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공영달의 해석과 교감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는 해석과 교감문을 함께 분석하여 공영달이 異文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모시정의』의 구조와 공영달의 「주남」 해석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주남」으로 설정한 이유는 『시경』의 첫 편이고 많은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어, 이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두 번째로 공영달의 모전과 정전에 대한 해석과 교감문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세 번

10) 다만 사본의 유통 특성상 권위 있는 판본을 주로 따라간다. 큰 틀로 대표적인 사본계통은 있었을 것이다. 본문은 주로 사본에 대한 이문을 논하는 글이므로 본문에서의 '판본'은 '판각에 의한 판본(edition)'의 의미가 아닌 '원본(text) 측면의 판본'이다.

째로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남」의 해석 체계 안에서의 이문 감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영달의 이문 감정 방법을 이해하고, 여러 해석을 정형하는 방식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학사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이 고착화되는 과정의 일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毛詩正義』의 구조와 孔穎達의 「周南」 해석 체계

현 『十三經注疏』에 포함되는 통행본 『모시정의』는 經文, 毛亨의 傳, 鄭玄의 箋, 孔穎達 疏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육덕명의 『경전석문』은 經注와 疏 사이에 부록되는 방식으로 합본되었다. 『모시정의』가 편찬될 당대에는 經, 注, 疏가 합쳐서 유통되지 않고 經注本과 『정의』가 별개로 유통되었다. 『모시정의』의 單行은 남송 때 經注疏 합본이 나오기까지 지속되었다.¹¹⁾ 공영달의 『모시정의』는 해석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하고 “正義曰”을 달아 그 뒤에 疏文만을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經文과 毛傳, 鄭箋은 수록하지 않았다.

『모시정의』에서는 ‘標起止’라는 방식으로 “모로부터 모모까지[某某至某某]”의 형식을 취하여 해석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毛傳과 鄭箋의 경우는 “傳某某至某某”, 箋某某至某某”라 표시하고, 그 아래에 “正義曰”을 써서 소문을 달았다. 공영달은 『모시정의』를 작성할 때에 劉炫의 『毛詩述義』를 저본으로 소문을 정리 및 보충하였다.¹²⁾ 『모시정의』의

11) 지금 통용되는 공영달 『모시정의』는 經, 毛傳, 鄭箋, 孔疏가 모두 합쳐진 『모시주소』이다. 최초의 『모시정의』 經, 傳, 箋의 合刻本은 南宋紹熙三年에 黃唐이 茶鹽司에서 供職할 때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8행본은 소실되고 『경전석문』이 부록된 10행본만 남아 있다. 『모시정의』의 單疏本의 경우 일본 杏雨書屋 소장 남송판본이 있는데, 이는 복송복각본으로 추정된다.

12) 『毛詩正義』序: 其近代爲義疏者, 有全緩、何胤、舒瑗、劉軌思、劉醜、劉焯、劉炫等。然焯、炫並聰穎特達, 文而又儒, 擢秀幹於一時, 馳絕轡於千里, 固諸儒之所揖

소문은 二劉舊疏와 唐人疏補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¹³⁾ 류현의 『모시술의』 또한 標起止를 통해 해석하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공영달이 『모시정의』를 편집할 때, 류현이 표시한 標起止를 자신이 저본으로 쓰고 있는 『모시고훈전』을 근거로 덮어씌웠다. 그러나 「燕燕」편 등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못했다.¹⁴⁾ 이는 당대에는 판각이 아닌 사본 형태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標起止도 당시에 유통되던 사본에 맞춰서 준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標起止로도 공영달이 사용했던 판본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周南」을 중심으로 『모시정의』의 경전해석과 그가 제시한 교감문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영달이 이문을 취사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주남」의 해석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남」에 수록된 시들은 后妃와 문왕에 대한 시이다. 「시서」의 첫 구절에는 시의 主旨를 밝히고 있어, 각 시의 주요 요지를 분류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정현의 「周南召南譜」에 대한 공영달의 소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周南召南譜」: 이 때문에 두 나라의 시가 후비와 부인의 덕을 처음으로 삼고 「麟之趾」와 「騶虞」를 마지막으로 삼아 후비와 부인에게 이러한 덕이 있는 것을 말했으니 그 군자를 도와 모두 공을 이루어 아름다운 상서를 얻는 것에 이를 수 있음을 흥하였다. ○正義曰: ……주남과 소남의 큰 뜻은 모두 가까운 곳부터 먼 곳에 미쳤으니, 주남의 「關雎」에서 「螽斯」까지 모두 후비 자신의 일이고, 「桃夭」「芣苢」는 후

讓，日下之無變，其於所作疏內特爲殊絕。今奉勅刪定，故據以爲本。然焯、炫等負恃才氣，輕鄙先達，同其所異，異其所同，或應略而反詳，或宜詳而更略，準其繩墨，差忒未免，勸其會同，時有顛蹟。今則削其所煩，增其所簡，唯意存於曲直，非有心於愛憎。(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北京大學出版社，2000.12. 4면.)

13) 程蘇東，「『毛詩正義』所引『定本』考索」，『中國典籍與文化論叢』，2010.

14) 程蘇東，「『毛詩正義』“刪定”考」，『文學遺產』，2016(05).

비의 교화가 미친 것이며 「漢廣」과 「汝墳」은 바꾸어서 문왕의 교화를 말하여 그 교화가 또 먼 곳(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다. 15)

정현의 「주남소남보」에서는 「주남」과 「소남」의 첫편과 마지막 편 모두 후비의 덕이 군자를 도와서 아름다운 상서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영달은 「주남」의 시를 「시서」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주남」에 수록된 시 중 「關雎」, 「葛覃」, 「卷耳」, 「樛木」, 「螽斯」는 후비 자신과 관련되고, 「桃夭」, 「冤置」, 「芣苢」는 후비의 교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며, 「漢廣」과 「汝墳」은 문왕의 교화가 남국까지 미친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내용은 「冤置」, 「漢廣」, 「麟之趾」의 서문에 대한 공영달 소문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비의 덕과 문왕의 교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關雎序」는 후비의 덕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관저는 후비의 덕이다[關雎, 后妃之德也].”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에 대한 공영달 소에는 『二南』과 관련된 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남」과 「소남」의 풍은 실제로 문왕의 교화이나 후비의 덕을 찬미한 것은 부부의 본성은 인륜의 중요함이기 때문에 부부가 바르면 부자가 친하고, 부자가 친하면 군신이 공경한다. 이로 인해 시로 그 성과 정을 노래한다. 16)

15) 『詩譜序』 「周南召南譜」：是故二國之詩以后妃夫人之德爲首，終以麟趾、騶虞，言后妃夫人有斯德，興助其君子，皆可以成功，至于獲嘉瑞。○正義曰：……而二風大意，皆自近及遠，周南關雎至螽斯皆后妃身事，桃夭、冤置、芣苢后妃化之所及，漢廣、汝墳變言文王之化，見其化之又遠也。……周南上八篇言后妃，漢廣、汝墳言文王。……周南以桃夭至芣苢三篇爲后妃所致，漢廣以下，其事差遠，爲文王之致。(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北京大學出版社，2000.12. 14-15면.)

16) 二南之風，實文王之化，而美后妃之德者，以夫婦之性，人倫之重，故夫婦正則父子親，父子親則君臣敬，是以詩者歌其性情。(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北京大學出版社，2000.12. 5면.)

여기에서는 후비의 덕을 찬미한 이유를 부부의 본성이 인륜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부관계가 바르면 부자와 군신 간의 관계까지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관저서」에서는 또한 이 편에 대해 “「주남」과 「소남」은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이고 왕의 교화의 기틀이다. 이로 인해 「관저」에서 숙녀를 얻어 군자와 짝함을 즐거워하고, 어진 자를 올리는 것에 있어서 여색을 과하게 하지 않았나 걱정하였다. 그윽하고 한적함을 슬퍼하고 어진 자질을 가진 자를 생각하여 선한 마음을 상하게 할 마음이 없으니 이는 「관저」의 뜻이다.”¹⁷⁾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영달은 “위에서 이미 「주남」과 「소남」을 총괄하여 말했고, 또 「관저」편의 뜻을 말하여 위의 후비의 덕을 반복하여 서술하였으니 「주남」과 「소남」이 모두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를 말하여서 먼저 집 안의 교화를 찬미한 것이다.”¹⁸⁾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술한 정현의 「시보」와 「주남」 각 편 의 서문에 대한 공영달의 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부부가 바르면 부자가 친해지고, 부자가 친해지면 군신이 공경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바른 부부 관계가 다스림의 시작을 바르게 하는 도이고 王化의 기틀이기 때문이다. 「주남」 해석의 체계가 이러한 바른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關雎」, 「葛覃」, 「卷耳」, 「樛木」, 「螽斯」에서는 후비의 역할을 통해 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후비의 덕이 「桃夭」, 「芣苢」, 「采芣苢」에서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漢廣」과 「汝墳」에서는 후비의 덕이 문왕의 교화로 전환되어 남국까지 미치는 점

17) 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是以《關雎》樂得淑女以配君子，憂在進賢，不淫其色。哀窈窕，思賢才，而無傷善之心焉，是關雎之義也。(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北京大學出版社，2000.12. 24면.)

18) 上既總言二南，又說《關雎》篇義，覆述上后妃之德，由言二南皆是正始之道，先美家內之化。(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北京大學出版社，2000.12. 24면.)

을 설명하고 있다.

후술하고자 하는 『모시정의』의 교감문에 대한 감정도 이 해석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孔穎達의 經傳箋文 해석과 異文 校勘

상술한 바와 같이, 공영달은 과거시험의 교과서로 활용할 목적으로 『오경정의』를 편집했다. 이를 위해 공영달은 당시에 통용되던 속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였고, 안사고의 『정본』과 최령은의 『집주』, 그리고 다른 속본 판본을 비교하여 텍스트를 勘定하였다. 본 절에서는 공영달이 經, 傳, 箋을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이문을 교감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¹⁹⁾

먼저 공영달 『모시정의』의 교감문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공영달은 이문에 대한 판단을 내려 정답을 제시하였다. ‘某某本衍’이나 ‘某某本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내린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대체로 소문의 해석으로 교감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관저」편 “꾸옥꾸옥 물수리[雉鳩]가 황하의 모래섬에 있도다[關關雉鳩，在河之洲]”에 관한 毛傳에 “雉鳩，王雉也，鳥摯而有別”²⁰⁾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해 공영달 『모시정의』에는 다른 판본을 제시하고 있는

19) 본문에서 사용하는 『毛詩正義』의 원문은 北京大學出版社(2000.12)의 『毛詩正義』를 기준으로 하였고 異文을 제시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각 주에서 번역을 하였다.

20) 저구(雉鳩)는 왕저(王雉)이다. 새가 도타우나 구별이 있다.

데, “속본에 ‘雉鳩, 王雉之鳥’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²¹⁾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본(定本)에서는 ‘새가 도타우나 구별이 있다[鳥摯而有別]’라 말한 것은 새 중에 암컷과 수컷이 마음의 뜻이 지극히 도타우면서 오히려 구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후비가 군자를 기쁘고 즐겁게 하여 마음이 깊으나 오히려 그 여색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흥(興)하였다. 毛傳에서 ‘摯’이라는 글자는 실로 ‘지극함[至]’이라는 뜻을 취했으므로 鄭箋에서 “摯은 ‘지극함[至]’이니 왕저(王雉)라는 새는 수컷과 암컷의 마음의 뜻이 지극하나 구별이 있다”라고 말하여 毛傳을 거듭 밝힌 이유이다. 속본(俗本)에 “雉鳩, 王雉之鳥”라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²²⁾

정본과 속본을 비교했을 때, 속본은 단지 雉鳩가 어떤 새인지만 설명을 하고, 정본에서 말한 것과 같이 雉鳩의 성질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시정의』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정현의 주석과 연계를 해서 설명하고 있고, 정현 또한 ‘도타우나 구별이 있다[摯而有別].’의 ‘도답다[摯]’에 대해서 ‘지극함[至]’의 의미를 취하여 모전의 설명을 토대로 저구(雉鳩)의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을 한 번 더 거듭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모전과 정전을 연계 관계로 규정하여 이문의 正誤를 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모전과 정전의 원문을 비교하고자 한다.

[毛傳] 雉鳩, 王雉也, 鳥摯而有別. (俗本作“雉鳩, 王雉之鳥”.)

21) 俗本云“雉鳩, 王雉之鳥”者, 誤也. (28면.)

22) 『毛詩正義』「關雉」: 定本云“鳥摯而有別”, 謂鳥中雌雄情意至厚而猶能有別, 故以興后妃說樂君子情深, 猶能不淫其色。傳爲“摯”字, 實取至義, 故箋云“摯之言至, 王雉之鳥, 雄雌情意至然而有別”, 所以申成毛傳也。俗本云“雉鳩, 王雉之鳥”者, 誤也。(毛亨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28면.)

〔鄭箋〕摯之言至，王雎之鳥，雄雌情意至然而有別.²³⁾

속본에서 언급되는 ‘王雎之鳥’라는 구절은 정전에서 똑같이 언급되는 것이 보인다. 모전과 마찬가지로 雎鳩를 지칭하고 있다. 정전에서 먼저 ‘도타움(摯)을 지극함(至)이라 한다(摯之言至)’라는 구절로 摯를 至로 해석하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王雎之鳥，雄雌情意至然而有別’²⁴⁾은 毛傳의 ‘雎鳩，王雎也，鳥摯而有別’²⁵⁾의 해석과 대비된다. 이는 두 주석의 대비로 인해 발생한 오류이다. 그러므로 모전에서의 ‘鳥摯而有別’²⁶⁾은 정현이引申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텍스트라고 보아 속본에서 언급하는 ‘雎鳩，王雎之鳥’를 오류로 보았다.

「관저」편에는 또 다른 이문이 있다. 경문 ‘들쭉날쭉 노랑어리연꽃 나물(參差荇菜)’에 대한 주석으로 毛傳에서는 ‘荇，接余也’²⁷⁾라 하였다. 이에 대해서 『모시정의』는 “정본에는 ‘荇，接余也’로 되어있는데, 속본에는 ‘荇아래에 ‘菜’라는 글자가 있으면 衍文이다.”²⁸⁾라 하여 속본의 ‘荇菜，接余也’라는 텍스트를 오류로 보았다.

모형전에서 ‘荇接’부터 ‘宗廟’까지 ○正義曰: 『이아(爾雅)』 「석초(釋草)」에 “행(荇)은 접여(接余)이다[荇，接余]. 그 잎은 귀목풀[苕]이다.”라 하였다. 陸機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서는 “접여(接余)는 줄기는 희고, 잎은 보랏빛 붉으며, 곧고 둥그랗고, 지름이 한 촌이다. 물에 떠 있으나 뿌리는 물 아래에 있어서 <줄기는> 물의 깊이와 같은데, 크기는 비녀 같고 위는 푸르고 아래는 희다. 흰 줄기를 죽으로 끓여서 쓴 술에

23) 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北京大學出版社，2000.12，25~26면.

24) 왕저(王雎)라는 새는 수컷과 암컷의 마음의 뜻이 지극하나 구별이 있다.

25) 저구(雎鳩)는 왕저(王雎)이다. 새가 도타우나 구별이 있다.

26) 새가 도타우나 구별이 있다.

27) 행(荇)은 접여(接余)이다.

28) “定本荇，接余也，俗本荇下有菜字，衍也”.

담구면 기름지고 맛이 좋아 안주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정본에는 ‘행(荇)은 접여(接余)이다(荇, 接余也).’로 되어있는데, 속본에는 ‘荇아래에 ‘菜’라는 글자가 있으면 衍文이다.²⁹⁾

이 문단은 경문 ‘參差荇菜’에서 ‘荇’을 해석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菜’의 해석을 알 수 없어서 衍文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문단의 標起止도 주목할 만하다. 傳荇接至宗廟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모시정의』에서 저본으로 활용하고 있는 판본은 荇接이라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달은 모전이 荇菜가 아닌 荇을 해석했다고 이해했다. 荇菜를 해석한 판본을 사용했다면 標起止도 역시 傳荇菜至宗廟이라 되었을 것이다.

荇에 대한 해석으로 『爾雅』, 『경전석문』, 『顔氏家訓』 또한 다른 이문을 제시하고 있다.

『經典釋文』: 행은 형(衡)과 맹(猛)의 반절음이다. 심중(沈重)은 유(有)와 병(並)의 반절음으로 읽었다. 좌우(左右)는 왕숙(王肅)은 모형(毛亨)과 같이 그대로 읽었다. 정현은 위의 글자를 좌(佐)라 발음하고 아래 글자는 우(佑)라 발음했다. 접여(接余)〈의 여(余)는〉 여(餘)라 발음하고 본래 혹 ‘접도(菱菜)’라 되어 있기도 하나 잘못된 것이다.³⁰⁾

『顔氏家訓』 『疏證』: 『시(詩)』에서 “들쪽날쪽 노랑어리연꽃”이라고 말하였다. 『이아(爾雅)』에서 “행(荇)은 접여(接余)이다(荇, 接余也)”라 말하였다. 〈행(荇)이라는〉 글자는 혹 행(荇)으로 되어있다.³¹⁾

29) 『毛詩正義』 「關雎」: 傳荇接至宗廟○正義曰: 「釋草」云: “荇, 接余, 其葉荇。”陸機疏云“接余, 白莖, 葉紫赤色, 正員, 徑寸餘, 浮在水上, 根在水底, 與水深淺等, 大如釵股, 上青下白, 霑其白莖, 以苦酒浸之, 肥美可案酒”是也。定本“荇, 接余也”, 俗本“荇”下有“菜”字, 衍也。(毛亨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30면.)

30) 『毛詩正義』 「關雎」: 荇, 衡猛反, 本亦作荇; 沈有並反。左右, 王申毛如字; 鄭上音佐, 下音佑。“接余”音餘, 本或作“菱菜”, 非。(毛亨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29면.)

『경전석문』, 『안씨가훈』 모두 苻菜의 苻에 대한 이문으로 苻과 耨을 제시하고 있다. 위 『모시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야』에서는 耨으로 되어 있으나 『안씨가훈』에서 인용한 『이야』에서는 苻을 사용했다. 『경전석문』에서도 耨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 두 글자는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전석문』과 『안씨가훈』 어디서도 ‘苻菜, 接余也’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생겨난 이문으로 보인다.

『耨菑』편의 「시서」에는 “화평하면 부인이 자식을 두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和平則婦人樂有子矣).”라 하였다. 『모시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耨菑三章章四句부터 有子까지 ○正義曰: 만약 천하가 혼란스럽고 어려워 병역이 쉬지 않으면 내 몸이 즐겁지 않아, 이 때에는 어찌 자식을 생각하는가? 지금은 천하가 화평하여 이에 부인이 비로소 자식을 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경의 3장은 모두 자식을 둔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정본에는 ‘화평(和平)’ 위에 ‘천하(天下)’라는 두 글자가 없는데, 정현의 전에 의하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³²⁾

여기서는 주석에 따른 경문 수정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본에는 ‘和平’위에 ‘天下’라는 두 글자가 없는데, 정현의 전에 의하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³³⁾라 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텍스트는 “天下和平則婦人樂有子矣”라고 되어 ‘天下’ 두 글자가 추가되었다. 공영달의 판단과 같이

31) 『顏氏家訓』「疏證」: 『詩』云: “參差苻菜。”『爾雅』云: “苻, 接余也。”字或爲耨。(顏之推撰, 王利器撰, 『顏氏家訓集解』, 中華書局, 1993.12. 409면.)

32) 『毛詩正義』「耨菑」: 耨菑三章章四句至有子○正義曰: 若天下亂離, 兵役不息, 則我躬不閱, 於此之時, 豈思子也? 今天下和平, 於是婦人始樂有子矣。經三章, 皆樂有子之事也。定本“和平”上無“天下”二字, 據箋, 則有者誤也。(毛亨傳,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61면.)

33) 定本“和平”上無“天下”二字, 據箋, 則有者誤也。(61면.)

정현은 “天下和, 政教平也³⁴⁾”라는 구절을 통해 和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설명하는 동시에,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정현의 설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추후에 「부이서」의 원문에 반영된 것이다. 해당 구절을 『모시정의』에서도 ‘今天下和平’³⁵⁾이라 해석하고 있다. 「시서」에서 말하는 和평을 후대 사람들이 천하가 태평하다고 해석하였다. 공영달 『모시정의』의 체계에 의하면 「부이」는 후비의 덕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시이다. 「모시서」로만 보았을 때 「관저」부터 「부이」까지 모두 후비를 언급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체계가 없었으나 정현에서 류현, 공영달을 거치면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가 되었고, 결국 이러한 경문 이해를 바탕으로 經, 傳, 箋 텍스트의 수정이 반영된 결과를 볼 수 있다.³⁶⁾

둘째, 공영달은 이문만을 제시하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無某某, 作某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타판본의 이문을 남겼다.

「葛覃」편에 “나 스승께 말하여 나 시집갈 도리 알려 달라 하였네[言告師氏, 言告言歸].”라는 구절이 있다. 鄭箋은 경문의 歸를 ‘婦人謂嫁曰歸’³⁷⁾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공영달은 “婦人謂嫁曰歸”는 은공(隱公) 2년 『공양전』의 글이다. 정본은 ‘歸’위에 ‘曰’이라는 글자가 없다³⁸⁾라고 교감했다. 공영달은 정본에는 ‘婦人謂嫁歸’라 하여 ‘曰’이 없고, 자

34) 천하가 화평하고, 정치와 교화가 고르다.

35) 지금 천하가 화평하다.

36) 실제로 사본이 아닌 간행된 판본에서도 자주 생기는 현상이다. 각본에서도 經注을 참고하여 疏文을 고치거나 심지어는 注疏를 통해 經을 고치는 등 서로 고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李霖, 『宋本群經義疏의 編校與刊印』, 中華書局, 2019.1, 330면. 참고.

37)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 한다.

38) 婦人謂嫁曰歸, 隱二年『公羊傳』文. 定本‘歸’上無‘曰’字.

신의 저본에는 ‘曰’이 있다고 밝혔다. 육덕명 『경전석문』에도 같은 대목으로 “‘謂嫁曰歸’는 본래 또한 ‘曰’이라는 글자가 없다. 이는 『공양전』의 글을 의거하였다.”³⁹⁾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영달 이전에도 ‘曰’이 있었는데 본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본래는 “婦人謂嫁歸”라고 되었던 것이 후에 『공양전』 은공 2년의 글에 의하여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阮元的 『校勘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각건대, 『모시정의』에서 “정본은 ‘歸’ 위에 ‘曰’이라는 글자가 없다.”라 말하였고, 『경전석문』에서는 “본래 또한 ‘曰’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여기서는 『공양전』의 글을 의거하였다.”라 말하였다. 毛亨 傳의 글이 오래되었으므로 그 언어가 또한 이러하니 마땅히 정본이 더 좋을 것이다. 정현의 전에는 ‘曰’이라는 글자가 있다.⁴⁰⁾

여기에서 완원은 모전은 글이 오래되기에 定本の 글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공영달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卷耳」편의 경문 “저 흠산을 오르는데, 우리의 말도 병들었네〔陟彼崔嵬，我馬虺隤〕.”라는 구절에 대해 鄭箋은 “我，我使臣也”⁴¹⁾라 했다. 공영달은 이에 대해서 “序에서 ‘신하의 수고로움을 알게 해야 한다.’라 말하였으므로 ‘使臣’인 것을 안 것이다. 정본에는 ‘我，我臣也’라 하여 ‘使’라는 글자가 없다.”⁴²⁾라 하였다. 공영달은 서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서 臣이 使臣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문의 ‘陟彼崔嵬，我馬虺隤’⁴³⁾를 정전에서 ‘신하가 병역의 일로 출행하여 그 자리에서 떠나 직접

39) “謂嫁曰歸”，本亦無“曰”字，此依『公羊傳』文。

40) 案正義云“定本歸上無曰字，釋文云“本亦無曰字，此依公羊傳文”。毛傳文古，故其語亦如此，當以定本爲長。其鄭箋則有“曰”字”。

41) 我는 우리의 使臣이다.

42) 序云“知臣下之勤勞，故知使臣也。定本云“我，我臣也”，無“使”字

산에서 고생하고 말 또한 병들었으니 군자는 마땅히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⁴⁴⁾라 해석하는 것을 근거로 사신이라 보았다. 본래는 정본과 같이 我臣이라 된 텍스트가 유행했으나, 당시 정전 문맥의 영향으로 我使臣이라 수정되었다. 두 이문 모두 의미가 통하므로 공영달은 이문 제시에서 머물렀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봤을 때 문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이문을 병존하는 방법을 택했다.

「樛木」편의 서 “言能逮下而無嫉妬之心焉”⁴⁵⁾에 “‘焉’은 ‘也’라고 한다”⁴⁶⁾라고 이문을 제시한 곳도 있다. 標起止에서는 ‘樛木三章章四句至之心焉’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공영달이나 劉炫이 사용했던 텍스트는 焉으로 되어 있었다. 『漢廣』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서에 대한 정전은 “紂時淫風徧於天下，維江漢之域先受文王之教化”⁴⁷⁾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공영달의 교감문으로 “정본에는 ‘先被’를 ‘先受’라 한다.”⁴⁸⁾라고 하였는데 被와 受는 해당 구절의 의미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焉과 也, 또한 受와 被에 대해서 이문을 확정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영달은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상술한 사례와 같이 병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상으로 공영달이 『모시정의』 제시한 교정문의 판단을 소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영달의 교감은 모건과 정전의 연관성, 그리고 여러 판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으며, 해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판단을 내린

43) 저 흠산 오르는데, 말도 지쳐 병들었네.

44) 臣以兵役之事行出，離其列位，身勤勞於山險，而馬又病，君子宜知其然。

45) 아래를 배풀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46) 定本‘焉’作‘也’。

47) 상주왕 때에 음란한 풍속이 천하에 퍼졌는데, 강수와 한수의 지역이 먼저 문왕의 교화를 받았다.

48) 定本“先被”作“先受”。

텍스트는 대부분 후대 학자들의 이해에 의해 經, 傳, 箋이 수정된 텍스트였다. 그러나 의미를 해치지 않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문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공영달의 이러한 이문 판단은 텍스트를 취사선택함으로써 경, 모전, 정전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통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4. 「周南」의 해석 체계 안에서의 異文勘定

윗 장에서 분석하는 여러 사례에서 보이듯, 『모시정의』의 교감문에서 언급된 일부 이문은 육덕명의 『경전석문』 및 안지추의 『안씨가훈』과 일치성을 보인다. 『경전석문』과 『안씨가훈』은 모두 본인이 주로 본 판본 혹은 동의하는 판본을 기준으로 제시어를 언급하고 이문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공영달 『모시정의』 이전에 존재하던 텍스트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에 시대적으로 공유하는 텍스트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공영달은 교감문을 통해 다양한 이문을 확정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문을 선후관계로 가정하여 해석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영달이 교감문에서 선택하지 않은 이문을 분석함으로써 공영달 『모시정의』에서 정한 '답안' 이전의 경전 해석을 부분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시서」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상술한 공영달의 「주남」 해석 체계 안에서 공영달이 교정한 텍스트를 고찰하면 공영달의 원칙과 태도를 알 수 있다. 대개 공영달이나 류현 이전에는 이러한 체계가 모호하거나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으나, 공영달이 해석체계를 완성하면서 사본으로 유통되던 여러 이문을 확정할 수 있었

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葛覃」편 「시서」에 “「갈담」은 후비의 근본이다. 후비가 부모의 집에 있을 때〔后妃在父母家〕 뜻을 女功의 일에 두고 몸소 검소하고 절약하여 깨끗이 빨래한 옷을 입고 사부를 존경하였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문안하여, 부인의 도로 천하를 교화한다〔化天下以婦道也〕.”⁴⁹⁾라 한다. 『모시정의』에서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后妃在父母家’와 ‘化天下以婦道也’ 두 이문을 제시하고 있다.

正義曰: 「갈담」편을 지은 것은 후비의 본성을 말한 것이다. 늘 바르고 절약하고 검소함은 원래 가지던 본성을 가리키니 또 본성을 거듭하여 서술하였다. 후비가 먼저 부모집에 있을 때에 이미 女功의 일에 오로지 뜻을 두었고, 다시 직접 스스로 절약하고, 재산을 신중히 절약하여, 이 깨끗이 빨래한 옷을 입어 사부님을 존경하였다. 집에 있어도 이런 본성이 있어서 시집을 가셔도 닦아져서 고치지 않아서 부인의 예에 허물이 없어서 남편에게 합당하니, 부모에게 돌아가 안부를 물어 부인의 도로 천하를 교화할 수 있다. 정본에는 ‘后妃在父母家’에 ‘之’라는 글자가 없고, ‘化天下以婦道’에 ‘成’이라는 글자가 없었는데, 있는 〈판본은〉 衍文이다.⁵⁰⁾

공영달에 의하면 정본에는 ‘后妃在父母之家’라 하고, 다른 판본에는 ‘化天下以成婦道’라 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판본에 대해 衍文이라 판단했다. ‘后妃在父母之家’의 ‘之’는 이해를 돕는 어조사로 쓰였다. 「모시정의」

49) 葛覃, 后妃之本也。后妃在父母家, 則志在於女功之事, 躬儉節用, 服澣濯之衣, 尊敬師傅, 則可以歸安父母, 化天下以婦道也。

50) 正義曰: 作《葛覃》詩者, 言后妃之本性也, 謂貞專節儉自有性也。敍又申說之。后妃先在父母之家, 則已專志於女功之事, 復能身自儉約, 謹節財用, 服此澣濯之衣, 而尊敬師傅。在家本有此性, 出嫁儉而不改, 婦禮無愆, 當於夫氏, 則可以歸問安否於父母, 化天下以爲婦之道也。定本“后妃在父母家”無“之”字, “化天下以婦道”無“成”字, 有者, 衍也。(36면.)

의 소문에 ‘后妃先在父母之家’⁵¹⁾라 하는 것으로 보아 이해를 돕기 위해 일찍이 ‘之’라는 글자가 추가된 經注本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化天下以婦道也’라는 구절은 공영달의 「주남」 해석 체계 안에서 분석해야 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상술했듯이 이 시는 후비 자신의 일을 말하는 5편(「關雎」, 「葛覃」, 「卷耳」, 「樛木」, 「螽斯」)에 포함된다. 문왕의 교화가 기산의 남녘에 행해졌는데, 이 출발을 「관저」편으로 후비의 덕 덕분이라고 칭송하고 있고, 「갈담」 또한 후비의 근본, 혹은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규정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化天下以婦道也도 ‘婦道’는 ‘化天下’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꽤나 타당하다. 즉, 후비의 婦道가 化天下의 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달이 제시하는 이문에 따르면 ‘化天下以成婦道’라 되어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글자가〉 있는 것은 衍文이다”⁵²⁾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정본 외에 꽤나 많은 판본이 ‘化天下以成婦道’라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化天下以成婦道’의 경우, ‘成’이 들어간다면 의미가 “천하를 교화하여 부인의 도를 완성한다”로 바뀐다. 즉, ‘천하를 교화함[化天下]’으로 ‘부인의 도[成婦道]’를 이룬다, 완성한다[成]로 뜻이 변한다. 成婦道와 化天下의 진행 선후가 바뀌어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 공영달의 해석대로라면 후비의 ‘婦道’로 ‘化天下’를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정의』에서는 해당 구절을 “부인이 되는 도로 천하를 교화한다 [化天下以爲婦之道也]”라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化天下以成婦道也’에 成이 추가된 원인은 무엇일까? 상술하듯이 『모시정의』는 공영달 등의 학자들이 二劉의 義疏를 참고하여 편집되었다. 그리고 그 저본이 되었던 류현 혹은 그 이전 학자가 ‘化天下以

51) 후비가 먼저 부모의 집에 있었다.

52) 有者, 衍也.

成婦道也'과 관련된 해석을 했을 것이다.

「갈담」 경문의 내용으로 보아 '化天下以婦道也'에 해당하는 경문은 보이지 않는다. 공영달도 또한 이에 대해 “在父母之家”라 말한 것은 1장이다. '志在女功之事'는 2장의 '治葛以爲絺綌'이 이것이다. '躬儉節用, 服澣濯之衣'는 3장의 '汗私澣衣'가 이것이다. …… '尊敬師傅'는 3장의 2구의 '言告師氏'가 이것이다. '可以歸安父母'는 곧 3장의 다음 구절 '歸寧父母'가 이것이다. '化天下以婦道'는 일로 인하여 생긴 뜻이므로 경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다.⁵³⁾라 설명하였다. 공영달은 「갈담서」와 경문의 각 내용을 틀에 맞추어 나누었으나, '化天下以婦道'는 경문에 해당하는 곳이 없어 맞추어 넣지는 못했다. 다만 “일로 인하여 생긴 뜻”이라고 하여 뒤에 후비의 일이 미친 영향도 고려하였다.

이 시는 후비가 한 일을 서술하기도 했으나, 나라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쓰임(用)으로써 작용했다고 해석한다면 '후비가 천하를 교화하여 나라의 부인의 도를 이루었다[化天下以成婦道也]'라 해석했을 여지도 있다.

사본 텍스트의 유통 특성과 經傳箋疏의 체계로 인해, 해석에 따라 經, 傳, 箋의 원문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혹 이러한 텍스트를 육덕명도 봤다면 언급을 했을 것이고, 혹 다른 속본이었다면 이 역시 언급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여러 해석을 바탕으로 論難을 했던 南學의 전통을 계승한 류현의 글과 달리, 공영달은 과거시험 답안을 위한 교재로 『모시정의』를 편집하였기 때문에 일관된 해석을 해야겠다. 따라서 공영달은 이전의 글을 확일되게 수정하였다. 이 사례에

53) 言在父母之家者, 首章是也。志在女功之事者, 二章治葛以爲絺綌是也。躬儉節用, 服澣濯之衣者, 卒章汗私澣衣是也。……尊敬師傅, 卒章上二句“言告師氏”是也。可以歸安父母者, 卽卒章下一句“歸寧父母”是也。“化天下以婦道”, 因事生義, 於經無所當也。(36면.)

서의 '成'을 衍文이라 처리한 것도 공영달의 해석체계에 맞춰서 勘定한 것이다.

「규목」편의 「시서」에 “후비가 아래를 베품이다. 아래를 베풀 수 있어서 질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것을 말하였다.”⁵⁴⁾라고 한다. 이 시는 3장으로 구성되고 장당 4구절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첫 장을 예시로 하면 다음과 같다.

南有樛木，葛藟累之。 / 남쪽의 가지 드리운 나무, 칩과 덩굴 무성하네.

樂只君子，福履綏之。 / 이 군자를 즐겁게 하여, 복록으로 편안하게 하리라.⁵⁵⁾

1-2구는 후비와 칩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3-4 구는 후비와 칩이 군자를 즐겁게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문이 있는 구절은 3-4구인 “樂只君子，福履綏之”에 대한 정현의 전이다. 정현은 이 경문에 대해서 “후비와 칩이 예의 뜻으로 서로 화합하고[妃妾以禮義相與和], 또 예악으로 군자를 즐겁게 하여 복록으로 편안하게 한 것이다.”⁵⁶⁾라 해석하였다. 공영달은 이에 대해서 “정본은 ‘妃妾以禮義相與’라 하여 ‘后妃’라 하지 않았는데, 뜻에 알맞다.”⁵⁷⁾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영달이 봤던 판본 중에 “后妃以禮義相與和”라고 되어있던 판본이 있었다. 즉, 정전의 “예의 뜻으로 서로 화합함[以禮義相與和]”의 참여자를 다르게 본 것이다. 이 주석을 명확히 하려면 정현의 앞뒤 주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정현은 「규목서」에 “후비가 여러 칩과 화목하여 그 용모를 질투하지

54) 后妃逮下也。言能逮下，而無嫉妬之心焉。(49면.)

55) 毛亨傳，鄭玄箋，孔穎達疏，『毛詩正義』，北京大學出版社，2000.12，50~51면.

56) 妃妾以禮義相與和，又能以禮樂樂其君子，使爲福履所安。(51면.)

57) 定本云‘妃妾以禮義相與’，不作‘后妃’字，於義是也。(51면.)

않고, 항상 선한 말로 아래를 베풀면서 편안하게 하였다.”⁵⁸⁾라고 주석하였고, 공영달 또한 “「규목」을 지은 것은 후비가 은혜로운 뜻으로 그 아래의 여러 첩을 대하여, 함께 왕에게 나아가게 하였으니 후비가 은혜의 뜻으로 아래를 베풀 수 있는 것 이유는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서임을 말한 것이다”⁵⁹⁾라 해석하였다. 모두 후비가 은혜의 뜻으로써 후첩들을 대하여서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해석하였다.

1-2구인 “南有樛木，葛藟累之”의 정전을 보면 “홍한 것은 후비가 뜻으로 여러 첩에게 아래로 베풀어서 차서를 얻게 하니, 여러 첩이 위로 이를 따라 섬기고 예의 뜻이 갖추어짐이 성한 것을 비유하였다.”⁶⁰⁾이라 해석하고 있고, 공영달도 “정전에서 위 아래로 모두 무상한 것을 취한 것을 아는 것은 아래에 ‘樂只君子’를 말하였기 때문이다. 후비와 여러 첩에 의거하면 이 경문은 아래에게 베푸는 것만을 흥할 뿐만 아니라 위 아래가 서로 함께 예의 뜻이 있어서 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을 흥하였다.”⁶¹⁾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 후비와 후첩 양쪽의 관계로 보았다. 그러므로 공영달은 자신의 해석 체계로 「규목」과 그 편의 정전을 해석하여 관련된 이문을 감정하였다.

「汝墳」편의 서문에 “「여분」은 도의 교화가 행해진 것이다. 문왕의 교화가 汝墳의 나라에 행해져서, 부인이 그 남편을 슬퍼하면서도〔婦人能閱其君子〕 오히려 바름으로 권면하였다.”⁶²⁾라고 하였다. 공영달은 이에

58) 后妃能和諧衆妾，不嫉妒其容貌，恆以善言逮下而安之。(49면.)

59) 作樛木詩者，言后妃能以恩義接機其下衆妾，使俱以進御於王也。后妃所以能恩意逮下者，而無嫉妒之心焉。(49면.)

60) 興者，喻后妃能以意下逮衆妾，使得其次序，則衆妾上附事之，而禮義亦俱盛。(50면.)

61) 箋知取上下俱盛者，以下云‘樂只君子’，據后妃與衆妾，則此經非直興下逮而已，又興其上下相與有禮義，可以樂君子。(50면.)

62) 汝墳，道化行也。文王之化行乎汝墳之國，婦人能閱其君子，猶勉之以正也。(67면.)

대해 “정본은 ‘能閔’ 위에 ‘婦人’ 두 글자가 없다”⁶³⁾라고 하여 정본의 이문이 ‘能閔其君子’임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두 이문을 병존시켰다. 다만 ‘婦人’ 두 글자가 들어간 판본에 대해서, 육덕명의 『경전석문』에서는 “다른 판본에는 ‘婦人’ 두 글자가 있다.”⁶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육덕명이 주로 보던 판본에도 ‘婦人’ 두 글자가 없었던 것 같다. 즉, 육덕명이 보던 판본은 정본과 같았다. 그러나 공영달이 저본으로 쓰던 판본, 혹은 당시에 유행하던 속본은 육덕명의 판본이나 정본과 달리 ‘婦人’ 두 글자가 들어간 판본이 유행했다. 정전도 이에 대해 “이 부인이 문왕의 교화를 입어 그 남편을 두텁게 섬긴 것을 말하였다.”⁶⁵⁾라고 해석하고 있다. 곧 남쪽에 있는 부인들까지 문왕의 교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能閔其君子’를 하는 사람을 婦人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아 정현이 봤던 판본은 ‘婦人’ 두 글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를 살펴봤을 때, 병용되었던 두 판본은 정현의 주석이 권위를 부여되는 과정에서 그 해석이 원문에 녹아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상으로 공영달 『모시정의』의 교감문 중 공영달 자신의 해석 안에서 정리한 이문을 분석해 보았다. 공영달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문 중에 다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자신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의 해석을 부정했다. 또한, 정현의 뜻과 가까우면 언급에서 그쳤고 정현의 주석을 위배하거나 자신의 체계를 벗어났다면, 이문에 대한 판단을 내려 감정을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경, 모전, 정전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였다.

63) 定本‘能閔’上無‘婦人’二字。(67면.)

64) 一本有‘婦人’二字。(67면.)

65) 言此婦人被文王之化，厚事其君子。

5. 마치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시정의』의 교감문을 문헌적인 측면에서만 살폈으나 본 연구는 『모시정의』의 교감문을 문헌적인 측면과 해석적인 측면을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공영달은 당시 유통되는 다양한 사본 이문을 교감하여 자신의 해석체계에 따라 經, 傳, 箋의 해석을 통일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달은 모전과 정전의 연관성, 그리고 각 이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교감을 진행했으며, 특정 이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해석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 전래되는 經, 傳, 箋의 원문은 공영달이 확정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공영달이 經, 傳, 箋의 원문을 확정하는 것으로 인해 당대 이전의 더 풍성한 이문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모시정의』의 교감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해석에 영향을 주는 이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석한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고,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교감기를 남겨서 이문을 병존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공영달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시에 유통되던 속본과 정본의 이문 차이를 통합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경전에 대해 그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공영달의 『모시정의』가 모전과 정전의 이문을 해석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만, 본고는 그 대상을 「주남」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공영달의 『모시』 전체에 대한 해석과 교감의 면모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이후 『모시』의 다른 편목을 아우르는 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인 면모를 밝히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부록) 「주남」 부분에서 보이는 『모시정의』의 교감문

	篇名	經傳箋文	『모시정의』 교정문
1	關雎	(傳)雎鳩, 王雎也, 鳥摯而有別	定本云“鳥摯而有別”, 謂鳥中雌雄情意至厚而猶能有別, 故以興后妃說樂君子情深, 猶能不淫其色。傳爲“摯”字, 實取至義, 故箋云“摯之言至, 王雎之鳥, 雄雌情意至然而有別”, 所以申成毛傳也。俗本云“雎鳩, 王雎之鳥”者, 誤也。
2		(傳)苻, 接余也	定本“苻, 接余也”, 俗本“苻”下有“菜”字, 衍也。
3	葛覃	(序)后妃在父母家……化天下以婦道	定本“后妃在父母家”無“之”字, “化天下以婦道”無“成”字。
4		(傳)王后織玄紵, 公侯夫人紘紵, 卿之內子大帶	定本云“王后織玄紵, 公侯夫人紘紵, 卿之內子大帶”, 俗本“王后”下有“親”字, “紘紵”、“大帶”上有“織”字, 皆衍也。
5		(傳)婦人謂嫁曰歸	“婦人謂嫁曰歸”, 隱二年公羊傳文。定本“歸”上無“曰”字。
6	卷耳	(箋)我, 我使臣也。	定本云“我, 我臣也”, 無“使”字。
7	樛木	(序)而無嫉妬之心焉。	定本“焉”作“也” *標起止: 樛木三章, 章四句至之心焉。
8		(箋)妃妾以禮義相與和	定本云“妃妾以禮義相與”, 不作“后妃”字, 於義是也。
9	采芣	(序)和平則婦人樂有子矣	定本“和平”上無“天下”二字, 據箋, 則有者誤也。
10	漢廣	(箋)先受文王之教化	定本“先被”作“先受”。
11		(傳)喬木上竦	定本“喬上竦”, 無木字。
12	汝墳	(序)婦人能閔其君子	定本“能閔”上無“婦人”二字。
13		(箋)已見君子, 君子反也, 于已反得見之。	定本箋之下云“已見君子, 君子反也, 於已反得見之”, 俗本多不然。
14	麟之趾	(傳)定, 題也。	定本作“題”。

〈참고문헌〉

[원전자료]

(漢)毛亨 傳, (漢)鄭玄 箋, (唐)孔穎達 疏,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2000.12.

(北齊)顏之推 撰, 王利器 撰, 『顏氏家訓集解』, 中華書局, 1993.12.

[연구논저]

高藝鵬(2023), 「再論『毛詩正義』所引“定本”性質」, 『國學學刊』, 2023(01).

喬秀岩(2017), 『義疏學衰亡史論』, 三聯書店.

孫少華·徐建委(2016), 『從文獻到文本——先唐經典文本的抄撰與流變』, 上海古籍出版社.

李霖(2019), 『宋本群經義疏的編校與刊印』, 中華書局.

余越(2024), 「『五經正義』所引“定本”研究平議」, 『儒家典籍與思想研究』(第十六輯)

李慧玲(2015), 「孔穎達『五經正義』中的“定本”辨析——以『毛詩正義』爲例」, 『歷史文獻研究』, 2015(02).

程蘇東(2016), 「『毛詩正義』“刪定”考」, 『文學遺產』, 2016(05).

程蘇東(2010), 「『毛詩正義』所引『定本』考索」, 『中國典籍與文化論叢』.

潘銘基(2015), 「『毛詩正義』所引“定本”研究」, 『經學文獻研究集刊』, 2015(01).

Kong Yingda's Method of Collating Variants in *Maozhuan* and *Zhengjian* in the *Zhounan* Section of *Maoshi Zhengyi*

Kim, Jungkyu *

Kong Yingda's *Wujing Zhengyi*(五經正義) was a textbook for the imperial examinations of Tang(唐) Dynasty, which served as an authoritative text for interpreting the Confucian classics. Among its sections, *Mao Shi Zhengyi*(毛詩正義) was compiled by Kong, based on the *Yishu*(義疏) of Liu Xuan(劉炫) and Liu Zhuo(劉焯). In compiling *Mao Shi Zhengyi*, Kong Yingda collated various textual variants across different texts and, constructed a consistent framework for interpreting the *jing*(經), *Maozhuan*(毛傳), and *Zhengjian*(鄭箋) using his own interpretative system. Kong Yingda not only considered the interpretative relationship between *Maozhuan* and *Zhengjian* to make clear judgments regarding on the variants that influenced the interpretative framework while he preserved variants that did not affect his interpretative system. Overall, Kong Yingda collated the textual variants between *Maozhuan* and *Zhengjian* within his interpretative framework. This study analyzes Kong Yingda's approach for collating variants in the *Zhounan*(周南) section of *Mao Shi Zhengyi* through his interpretative perspective, therefore exploring the process of standardizing classic interpretative systems in the Tang Dynasty.

Key Words

Kong Yingda, *Mao Shi Zhengyi*, Zhounan, collation, Confucian classics

논문접수일: 2024.11.26, 심사완료일: 2024.12.11, 게재확정일: 2024.12.18

* Peking University / E-mail: uninitiated@naver.com